

오륙도 칼럼

나눔, 흔히 듣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엔 쉽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다.

어든이 넘는 나는 10여 년에 걸쳐 대한민국 12바퀴 3만km를 걸어서 여행했다. 한 해 절반은 붓집 하나 둘러메고 동가숙서가식해 가며 홀로 국토를 종으로 횡으로 마음껏 파듯 순례했다.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부터 산간오지, 해안벽촌, 도서벽지 등 걸어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종일 배도 굶아보고 한겨울 잠 잘 곳을 찾지 못해 동태가 되기도 했다. 더러 수중에 돈이 떨어져 난처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서, 나는 나눔이 거룩함, 성스러운, 희생의 또 다른 표현임을 몸으로 잘 알고 있다.

나눔, 대한민국에서는 말로만 무성할 뿐 행동실천은 별로인 계 현실이다. 특히 지식인, 부자,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종교지도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의 나눔을 거의 겪어보질 못했다. 말로는 어려운 사람 운운하지만 행동실천은 거의 없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이었다고

몰인정의 극치였다. 일견 듣기 불편할지 모르나 김삿갓 보다 더 오래 그리고 넓고 깊게 국토를 쏘다닌 이 늙은이의 경험에 비추면 그랬다. 걸으면서 잘 사는 큰 집 대문 벨을 누르고 ‘돈이 떨어져서 왔다’고 말하면 백의 백은 문을 닫아걸고 문전박대를 뿌렸다. 혹자는 이를 두고 ‘세상이 험해져’라며 세상 탓을 할지 모르겠다.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그보다는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인색함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마음에 들러붙어서 일 것이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의 나눔이야말로 나의 걷기에 날개가 되어 주었고 나를 비약비상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염치를 접고 허름한 집에 사는 허름한 이들에게 밥을 구걸하면 가까이 나를 집 안으로 들이고 말없이 밥을 차려 내왔다. 때로 구렁이 알 같은 여비를 손에 쥐어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잘 다니시라’ 격려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이런 나눔을 실천행동하는 소중한 이들이 있어 내가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경험도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도 이 나라, 이 세상에는 아직은 인

국토 12바퀴 걸으며 현실체험

빈자의 나눔이 진정한 나눔

나눔은 언젠가 언어처럼 돌아와

봄부터 천주교 성지 111곳 순례

생을 건 여정 불구 나눔 있어 가능

성적인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겨운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바가 있기에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격의 가치는 직위가 높고, 잘 살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자를 지향하며 얼마나 겸손하게, 소리 없이 나누는 바가 있는나로 결정된다. 내 것을 쪼개 나눔을 실천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식은 훗날 나누는 사람이 된다. 보고 자랐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눔도 유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아 돌아서 주는 것은 이미 주는 것이 아니며, 인심은 결코 쌀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

남을 절절히 느끼고 느꼈다. 필자 역시 산전을 주유하며 이들에게 받은 나눔을 다시 생면부지 타인에게 베풀며 다녔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낳게 된다.

그리고 나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밥을 주는 이가 교만을 떨며 뻔뻔하게 퍼준다면 얻어먹는 사람은 기가 죽고 하리를 굶어야 해 소화가 될리 만무하다. 허리를 굽혀 겸손하게 나눔을 실천해야 상대가 편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 건강의 자양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세상사의 순리이고 이치다.

모든 종교와 신앙을 꿰뚫는 핵심 교리는 나눔에 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국내 천주교 성지 111곳, 약 3,200km를 걸으며 순례할 계획이다. 5만분의 1 지도에 갈 길을 그려보니 대한민국 국토가 마치 거미줄처럼 엉킨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자 내 생을 건 마지막 여정이 되리라 본다. 그 와중에 수많은 좌절, 냉대 그리고 나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 것을 쪼개면 희망과 사랑, 평화가 내 영혼에 깃들게 된다. 그런 나눔은 언젠가 언어처럼 성장해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것이 불멸의 진리이다.

남상범 (도보여행가 겸 서울대의대 명예홍보대사)

신선대

<228>

채 규홍



함께하는 생활법칙

나쁜 화해가 좋은 소송보다 낫다

부산의 지자체 중 최초로 개설된 남구청 무료법률상담이 벌써 10년을 맞았다. 상담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추 비슷해 전문가에게는 상식이 되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생소한 법규를 설명해 주는 법률문제인 것 같다. 대다수의 상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간혹 상담과정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화해로 해결될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

담당 너머 내 땅을 찾으려고 상담실을 찾은 민원인이 있었다.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즉, 경계 침범이 명백하여 '토지인도' 소송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침범한 상대가 필자의 지인이 아닌가. 민원인에게 상대방이 지인임을 밝히고 화해를 시도해도 되는 지 양해를 구하고 그의 면전에서 지인에게 전화로 구청 무료상담 중임을 밝히고 화해를 권했다. 처음에는 필자가 민원인 편을 드는 줄 알고 탐탁찮게 여기며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분이 나빠 골라지 법대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닌가.

그에게 조심스레 '토지인도' 소송이 시작되면 이어질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여타 소송과 달리 토지인도나 철거, 건물명도 등 부동산소송의 경우 적잖은 소송비용이 수반되는데 만약 패소하게 되면 소요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모두를 패소자가 떠안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참 후 지인의 목소리가 차분해지며 민원인과 대면 회화를 가질 테니 현장 참여를 부탁했다. 구청 무료상담이 현장상담으로 이어졌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만난 두 사람이 낯선 공방을 벌였지만 '법률'을 아는 남구청(?)의 설명으로 마침내 자진철회로 결론지어졌다. 얼마 안 돼 새 담장이 축조되고 생면부지의 민원인은 필자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소송하지 않고 해결되었다"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정작 덕(?)을 본 지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나쁜 화해'라도 좋은 소송보다 낫다'는 말은 진리다. '법으로 먹고 사는' 법률가도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면 기분이 좋다. 설사 벌이가 없어 배가 고파도 말이다.

김성수 법무사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실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환경오염 유발하는 '소원 동전 던지기' 자제를

가끔 유명한 절이나 교회, 성당 등을 방문하다 보면 찾아온 사람들이 갖가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물

속에 던지는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 인생살이가 마음 먹은대로 잘 되지 않아 무언가에 의지하기 위해 동전

■ 기자수첩

글자 배워 어엿한 책까지 발간

한글교실 할머니들의 작은 기적

우암동 양달마을 행복센터에서 어르신 한글 교실에 다니는 박옥자 할머니다.

나는 이 2층에서 일주일에 두번씩 한글을 배우고 있다. 우리들은 이들도 적을 줄 모르고 온 사람도 있다. 이름을 알고 온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배워 이름을, 딸에게 편지를 적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고 답장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직접 쓴 편지가 오륙도축제에 전시되고, 어느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리다가 하던 남구신문에 실리기까지 했다. 글 배우러 왔다가 원고료까지 받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다들 "살다가 별 일을 다 봤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적은 편지를 양달마을 행복센터 1층에 전시 했는데, 경찰관이 순찰 중에 잠깐 들렀다가 우리 편지를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되어 방송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쓴 편지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우리 할랑구들 편지를 누가 읽는다고" "아이구, 선생님요. 우째 그런 말씀을 하시는고. 맥도 없는 소리들..."하며 다들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둘씩 편지를 써 오기 시작하였다.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우리 친구들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참, 그 힘들게 사셨네." "까막눈으로 이 한 세상, 아저, 살았습니까?" "아-아, 그 때는 잘 나갔네, 좋았겠네!"하며 웃다가 웃다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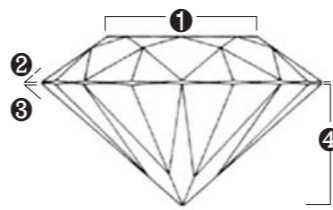
다들 '설마 우리가 어떻게 책을 내겠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편지를 한 달, 두 달 계속 적었다. 친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사무장님, 동장님,

선생님, 행복센터 회장님, 남구청장님, 대통령님 등등. 주위를 둘러보고 고마운 분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많이 있었다. 이 분들이 읽을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편지는 이어졌고, 어느날 박지영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책을 한권씩 나누어 줬다. 내가 쓴 편지가 책에 실린 것이다. 돈이 없어 30년 정도만 적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들도 쓸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행복센터에 공부하면서 이름과 주소, 편지를 적은 내용이었다.

특히, 행복센터 회장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일찍 가면 출다고 수업이 오전 9시 30분인데, 늙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이 좋아서 워낙 일찍 와 8시 30분에 문을 열고 가는 날이 줄어들어 되고 싶었다. 글을 몰라서 한다고 배고프시죠? 오늘은 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배우세요. 절대 칭찬할 일 아닙니다. 나오셔서 친구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보내시고 가시면 건강해집니다"라고 말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적은 편지였다. 네 편지가 책에 나의 사진과 함께 나와 있었다. 나 뿐만 아니라, 모두들 정말 의아해했고 눈물을 흘렸다.

올해 73세로 한글교실에 다니는 나의 꿈은 원래 양장이나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 글을 몰라서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이제는 신문에 글도 내고, TV에도 나온다. 평균 연령이 74세의 할머니들이 책을 내고 보니, 평생 글을 몰라 움쭙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도 생겼다. 뿌듯하고 세상에 도전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 보였다. 꿈만 꾸면 꿈이지만, 도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나에게 보여주었다.

박옥자 명예기자



적어 있다.

그 외 색상이나 형광 등 여러 요인들로 약초와 잡초로 나뉘진다. 최근에는 면이 많은 다이아몬드(102면, 88면)가 시장에 나와 최고라고 한다. 그것도 부산에만 있다. 이는 잡초 중에 잡초다. 한때 유럽 한 품종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질이 낮은 잡초다. 하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석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위해 큰 마음 먹고 산 귀한 보석이 '알고 보니 잡초였다'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교태(부산여대 보석과 교수)

산다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5. 2.>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2/8(일)	통영 연화도	010-9979-0702
	대오산악회	2/8(일)	문경 조령산	010-2559-2086
	청암산악회	2/11(수)	고성 오봉산	010-6778-3192
	악천산악회		개별산행	010-4655-4370
용호동	오륙도민주산악회	2/7(토)	구미 금오산	051-621-6444
	용사산악회	2/22(일)	가창 월여산	010-3586-6161
	용호산악회		개별산행	010-2593-0361
	영평산악회	2/1(일)	지리산 노고단	010-3554-4392
	용신산악회	2/8(일)	의령 벽화산	011-488-3307
	금강산악회	2/1(일)	해남 두루산	010-3865-9051
	간C산악회	2/8(일)	율주 치술령	010-6266-8525
	부산산악회	2/1(일)	전북 진안 마이산	010-7223-2277
	천안산악회	2/1(일)	곡성 설산	010-8008-2087
	한마음산악회	2/8(일)	마산 저도 비치로드	010-8324-3424
용당동	여남산악회	2/8(일)	활양 월봉산	010-4553-6615
	문화산악회	2/22(일)	경남 남해 금산	016-564-8882
감만동	용마산악회	2/8(일)	개별통진	010-3924-0177
	녹색산악회	2/22(일)	경남 남해 금산(시산제)	010-7343-3426
우암동	즐거우산악회	2/22(일)	경주 토함산	010-2397-1133
	우일산악회	2/1(일)	충북 영동 민주지산	010-3557-2847
문현동	한울산악회	2/8(일)	철곡 가산	010-8524-8224
	문사산악회	2/8(일)	문경 조령산	051-631-9001
	문현산악회	2/1(일)	강원 태백 할백산	011-9544-3434
	문현2산악회	2/8(일)	백암산 및 백암온천	010-3178-3065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안내

- 대상 : 만 60세 이상 남구주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검진내용 및 검진기관
 - 보건소 : 선별검진(MMSE-DS) 결과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 협약병원 : 정밀검진(인지검사, CT, 혈액검사 등)
- 검진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문의사항 : 보건소 치매상담실 ☎607-6422, 6424